

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조치방법

안정을 취하고, 급격한 몸의 변화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!

“불개미의 독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. **쏘인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, 급격한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.**”

증상

● 경도/ 쏘인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

쏘이는 순간 뜨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,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쏘인 상처가 가렵게 됩니다. 10시간 정도 지나면 고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● 중도(中度)/ 두드러기

쏘이고 몇 분에서 몇 십분 후까지는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고, 부분적, 또는 전신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● 중증(重症)/ 호흡곤란·혈압저하·의식장애

쏘이고 몇 분에서 몇 십분 사이에 숨쉬기가 곤란하고, 목소리가 안 나오며,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현기증 등을 일으키거나, 더 진행되면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. 이와 같은 증상은 중증의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인 「아나필락시스」일 가능성이 높아, 처치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
☞ 불개미의 독성분

불개미의 독에는 알칼로이드인 Solenopsine (2-methyl-6-alkyl piperidin)과, 벌이 가진 독의 공통성분으로 phospholipase나 Hyaluronidase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런 이유로 독개미에 쏘인 경험이 없어도 벌 독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대처 방법

● **쏘인 직후의 대처**

20~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,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주의하며, 경도의 증상만 있고,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가 아니라면, 천천히 병원 진료를 받아도 괜찮습니다.

● **몸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**

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,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. (응급실이 있는 병원 추천). 「불개미에 쏘임」「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」을 전달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.

● **만일의 경우에 대비**

특히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고,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드레날린 자가주사키트 「에피펜」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. 중증의 증상이 막 나올 시점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며, 또한, 경도~중도(中度)의 증상에는 효과적인 항히스타민제의 내복약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.



아드레날린 자가주사키트

출처 :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(www.env.go.jp)